

HEREN

트루 프리미엄 멤버십 매거진 HEREN IS LOVE

March 2014

매장 비치용

〈HEREN〉 정기구독 문의 1588-7761
광고 문의 02-3015-0791



근현대를 건다

머무는 공간, 갤러리 카페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경연장, 2014 SIHH
2014 S/S Bag&Shoes


Breguet
Depuis 1775



줄리앙 오피의 속도

줄리앙 오피. 그는 너무 앞서가거나 뒤처지지 않는 작가다. 지금 신사동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외양과 속도를 왜곡 없이 작품에 옮겨오는 것처럼, 그는 딱 우리와 같은 속도로 걷고 관찰한다. 이 시대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포착해내는 능력이야말로 예술 애호가를 넘어 많은 대중들이 그의 작품을 기억하고 열광하는 이유다.

아직도 줄리앙 오피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는 미술계에서 마이클 잭슨만큼이나 유명한 이름이다.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을 사사한 영국 yBa의 기수이자, 실존인물을 간결한 픽토그램으로 표현하며 이 시대의 초상을 담은 화가. 설사 그의 이름을 모른다 한들, 그의 작품을 보고서도 그것을 잊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몇 해 전, 서울스퀘어빌딩의 초대형 LED 전광판을 성큼성큼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바로 그이고, 영국의 세계적인 록밴드 블러의 얼굴을 캐릭터화해 최대의 앨범 커버를 제작한 이가 바로 그다. 골격과 컬러만 매끈하게 남겼으나 화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생동감 있게 그려진 인물들. 극도로 단순한 그의 그림은 어려운 현대미술의 홍수 속에서 스타벅스의 로고만큼이나 편하게 다가왔고, 컬렉터들은 마치 줄리앙 오피의 작품이 세련된 현대인의 초상이기라도 한 양 앞다퉈 그의 작품을 사들였다. 일말의 해석이나 사고를 요하지 않을뿐더러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환해지는 장식적인 작품을 구태여 거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그게 다일까. 그의 작품을 가까이서 응시해보면 그의 작품 속 풍경들이 이 시대와 '끝내주는' 싱크로율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전율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도시의 행인들을 LED에 가둬놓은 줄리앙 오피의 작품을 가장 잘 감상하는 방법은 그 곁에서 서서 걷는 것이다. 그들 곁에서 나란히 두벽이다 보면, 무심결에 내가 그 사람들과 한 길에서 걷고 있는 듯한 미묘한 일체감이 찾아온다. 그들 손에 들린 핸드폰과 어딘가 바쁜 듯한 발걸음은 딱 우리의 마음 상태나 물리적 속도와의 정확히 일치한다(물론 그 걸음의 속도를 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서울스퀘어빌딩의 초대형 LED 전광판에 설치됐던 오피의 작품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서울 사람들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저 굵은 점인 줄로만 알았던 눈이 느리게 '깜빡'이며 보는 이를 응시하는 애니메이션은 또 어떤가. 감쪽같은 정지 화면이 불시에 애니메이션이 되어 생명력을 부여받는 순간, 우리 몸에 있던 인지하지 못했던 감각들은 불현듯 깨어난다. 단언컨대, 작품을 보는 순간 몸과 마음이 동시에 반응하는 이런 유의 경험은 일찍이 이 시대의 어떤 미술가도 선보인 바 없던 것이다. 덧붙이자면, 놀랍게도 이 시대의 어떤 작가도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이토록 꾸준하게 그려오지 않았다.

지금 국제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는 그의 작품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그는 아예 서울의 행인들을 화폭에 불러들였다. 실존하는 것만 그린다는 그의 원칙에 비추어보자면 저 모두는 다 언젠가 서울의 거리를 걸었던 우리의 친구이자 지인이자, 혹은 나 자신일 것이다. "한국에서의 전시를 앞두고 서울에 있는 사진가에게 거리 풍경을 찍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3000여 장의 사진이 도착했죠. 첫 거리 시리즈였던 런던과 비교하면, 사람들의 옷 색채가 화려하고 여러 개의 액세서리를 걸치고 있다는 점이 달랐어요. 그림사도 별로 없이 밝고 플랫한 사진이었죠." 사진을 받아 든 그가 한 일은 치밀한 프로파일러처럼 캐릭터들을 분리해내는 일이었다. 인물의 사진을 컴퓨터에 넣은 후 윤곽을 따고 디테일을 정돈하고, 피부와 액세서리의 가장 정확한 색



개인전이 열리는 국제갤러리 K3관에
선 줄리앙 오피. 그는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치 않는다며 한사코
촬영을 사양했다. 런던 토박이인
그는 정중하고 단호하며 이성적인
작가였다. 전시는 2월 13일부터 3월
23일까지 열린다.



Julian Opie, 'Walking in Sadang-dong in the rain'(2014)
Vinyl on wooden stretcher, 230x344.3cm

“여기 전시된 작품들은 이집트 시대의 벽화라든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프리즈(frieze)에서 단서를 얻어 만들어졌어요. 작업을 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작업과 연관된 주변의 여러 가지를 파헤치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예술이 만들어지는 방식, 세계가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작업보다 선행되어야 하죠.”



- 1 줄리안 오피의 최근작들로 채워진 국제갤러리 K3관. 가운데 놓인 거대한 인물 조각은 사람 키 높이를 기준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신석기 시대 토テム과도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다. 농축된 레진으로 제작한 뒤, 페인팅과 동일한 색채와 스타일로 채색했다.
- 2 그리스 신전의 박공(frieze)에서처럼 서울 신사동 거리의 군중을 표현한 작품.
- 3 'Walking in Sadang-dong 1'(2014), LED 애니메이션 신작 'People'(2014)이 놓인 전시장 풍경.

을 찾아내고 단순화하는 일련의 과정들. 공식을 입력하면 착착 답이 구해지는 연산처럼, 그 과정엔 어떠한 감정적인 해석도 끼어들지 않는다. 다만, 이번 작업의 다른 점이 있다면 '개인'이 아니라 '군중'이기에, 즐거운 취사선택이 더해졌다는 점이다. "저는 누군가가 걷는 걸 그리거나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때, 각각의 인물을 하나의 컬러 차트처럼 사용합니다. 소설가가 한 캐릭터를 이곳저곳에 배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좀 더 흥미를 끄는 인물들을 고르고 여러 사람을 합쳐 최대한 자연스럽게 묶어내는 거죠. 모든 캐릭터들은 실존하는 인물들이고 개별적이지만, 작업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걸 발명하는 과정이에요" 이토록 단순한 방식으로 작업하는 그에게 단 하나의 신화가 있다면, 모두가 그의 작품 앞에서는 그것이 '줄리안 오피'의 것임을 알아본다는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지독한 형식주의자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신사동 시리즈 이전 런던 시리즈와 뭄바이 시리즈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던지는 질문에도, 그는 '그렇게 멀리 갈 것 없다'는 듯 무심하게 일축했다. 다른 빛깔의 옷을 입고, 다른 공기 속에 걷는 사람들을 잇달아 그리며 그 역시 그 안에 감도는 다른 문화를 감지할 거라는 연상은 착각에 불과했던 것이다. "저는 좀 더 논리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입니다. 스튜디오가 런던에 있으니까 가장 먼저 런던 사람들을 그렸고, 뭄바이에서 전시가 있어서 뭄바이 사람들을 그렸을 뿐이죠. 제게 필요한 건 서울 사람이 아니라 그저 사람이었죠. 그런 면에서 제 작업은 상황과 논리가 복잡한 결과물이에요. 실제로 제게는 그 모든 것에 의미 부여를 할 에너지도 없고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저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특별한 곳을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감을 받기 위해 아프리카에 간다든지 하는 일은 제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본 주변을 그리는 것, 그게 제 작업 방식이죠." 그렇다면, 그는 보이는 것을 다시 '찍어내기만' 하는 이 시대의 앤디 워홀에 불과할까. 감 좋은 이들이라면 눈치챌 수도 있겠지만, 서울에 온 그의 작품은 예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다. 무용수나 발레리나의 동작에 주목하거나 인물의 캐릭터를 잡아내는 데 그쳤던 그의 작업이, 뻥튀기되어 큰 두상이 되어 있거나 군중 그 자체가 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 5년간 17~18세기 회화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즐기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제 작업을 스스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죠. 여기 전시된 작품들의 경우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 시대의 벽화라든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프리즈(frieze)에서 단서를 얻어 만들어졌어요. 작업을 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작업과 연관된 주변의 여러 가지를 파헤치고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예술이 만들어지는 방식, 세계가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게 작업보다 선행되어야 하죠" 그의 설명을 들으니, 이 깨끗한 화이트 큐브가 금세 고대 벽화가 그려졌던 어두컴컴한 동굴이라도 된 듯했고, 키 높이의 거대한 두상들은 이집트의 파라오와 겹쳐 보였다. 드가가 살던 시대의 삶을 발레리나 그림에서 추측하고 고대 문명을 벽화로 이해하듯, 우리가 이 땅에서 모두 사라지고 난 후 미래의 사람들은 어쩌면 줄리안 오피의 그림으로 21세기의 삶을 이해할지도 모를 일이다.

"나는 좀 더 단순한 생각으로 작업합니다. 제 작품이 그 정도로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집트 로마 미술이 나를 매혹하는 이유는 그 표현이 직설적이며, 용도도 실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단순한 감각을 좋아할 뿐이죠. 하지만 과거를 그리는 게 세계 의미 없는 이유는, 내가 지금 바라보는 현상들에 이미 과거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기록하고 이리저리 재구성해보는 것은 예술가로서 나의 재미를 위한 것이지, 시대를 증언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행해지는 일은 아니에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작품에 쓸데없는 의미가 부여되는 것을 걱정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그게 더 놀랍지 않은가. 제프 쿤스 같은 허풍도 무라카미 다카시 같은 마니아함도, 데미안 허스트 같은 파격도 없이 미술계의 왕좌에 앉는다는 것이. 예술가라기보다 차라리 애널리스트를 연상케 할 만큼 냉정으로 일관하는 줄리안 오피. 그의 작품에 대한 열광이 여전하며, 예술이 가까워오는 줄리안 오피를 많은 이들이 젊은 작가라 착각하는 이유는 지금 바로 이곳만을 즐기치게 응시하는 시선, 그 눈높이와 속도가 우리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

editor 박지혜 photographer 윤선웅 cooperation 국제갤러리(02-735-8449)



Julian Opie, 'Julian'(2012)

1 줄리안 오피가 직접 작업한 자화상. 그는 사진을 찍는 대신 이 이미지를 사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2** 줄리안 오피의 새로운 연작 중 하나. 관광지의 인물을 전신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17~18세기의 전신 초상화에서 힌트를 얻어 제작했다.



Julian Opie, Man with a beard and dark glasses holding a waterbottle, 2013